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발 제 2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징

장 종 익 교수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징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1. 유럽연합 사회적경제 부문에서의 이탈리아의 위치와 특징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CIRIEC (International Centre of Research and Information on the Public, Social and Cooperative Economy)에 의뢰하여 조사 연구된 2007년 보고서(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그리고 재단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유럽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 등의 연락협의회' 가 정의하는 사회적경제의 원칙(Charter of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은 다음과 같음.

i) 자본보다 개인 및 사회적 목적의 우선
ii) 자발적이고 공개 가입원칙
iii)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단은 예외)
iv) 조합원, 이용자, 그리고/혹은 일반대중의 이익의 결합
v) 연대와 책임 원칙의 견지와 적용
vi) 정부당국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적인 경영
vii)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 조합원의 이익, 혹은 일반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

- CIRIEC가 유럽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의한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는 "민간이 자율적인 결정과 공개조합원가입원칙에 입각하여 공식적으로 조직한 기업들의 집합으로서 이 기업들은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을 통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 보험 및 금융을 제공하되, 의사결정과 조합원간의 잉여 혹은 이윤의 배분이 조합원이 기여한 자본량이나 수수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원들은 1표를 가지는 기업들임. 사회적경제는 또한 민간이 자율적인 결정과 공개조합원가입원칙에 입각하여 공식적으로 조직한 조직들도 포함하는데, 이 조직들은 가구를 위한 비시장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로

부터 발생하는 잉여는 이러한 조직을 설립하고, 통제하고, 혹은 자금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전유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님."

- 위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따라 분류된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에 종사하는 경제 인력을 조사한 결과, 15개 국가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 경제부문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6.7%에 해당하는 11백만명을 고용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부문으로 나타났음. 10개 신규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4.2%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1〉 참조).

-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부문은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에 고용된 인원이 837천명, 협회와 재단에 고용된 인원이 499천 명 가량 되며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고, 사회적 기업도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이탈리아의 공제조합에서 고용된 인원은 989명에 불과하고 협동조합에 고용된 인원이 836천 명에 이름.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에 고용된 인원은 189천 명에 달하고 있음. 협회에 고용된 인원은 294천 명에 이르고 재단 및 위원회에 고용된 인원은 205천 명에 이름.

〈표 1〉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고용현황 (2002-2003)

국가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재단 (associations/ foundations)	합계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벨기에	17,047	12,864	249,700	279,611	6.9%
프랑스	439,720	110,100	1,435,300	1,985,150	8.3
아일랜드	35,992	650	118,664	155,306	9.0
이탈리아	**837,024**	**주1**	**499,389**	**1,336,413**	**6.2**
포르투갈	51,000	주1	159,950	210,950	
스페인	488,606	3,548	380,060	872,214	5.4
스웨덴	99,500	11,000	95,197	205,697	
오스트리아	62,145	8,000	190,000	260,145	6.9
덴마크	39,107	1,000	120,657	160,764	
핀란드	95,000	5,405	74,992	175,397	
독일	466,900	150,000	1,414,937	2,031,837	
그리스	12,345	489	57,000	69,834	1.8
룩셈부르크	748	n/a	6,500	7,248	9.5
네덜란드	110,710	n/a	661,400	772,110	
영국	190,458	47,818	1,473,000	1,711,276	6.1

주1: 공제조합의 수치는 협동조합에 포함됨.

출처: Chaves and Monzon (2008)

2.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현황, 역사, 특징

1) 협동조합의 현황

- 2005년 기준 이탈리아 협동조합경제는 1130억 유로 (약 170조원)을 생산해 내며, 1,05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700만 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 (이탈리아상공회연합의 보고서, 2006)

- 농업 및 수산업
  (총 노동자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 1971: 39%, 2001: 37%)
- 식음료산업 (6.3%, 9.7%)
- 운송, 저장, 통신 (4.9%, 12.9%)
- 은행 및 금융 (8.3%, 14.1%)
- 교육 (1%, 13%)
- 부동산경영, 렌탈서비스, 컴퓨팅 등 (1.6%, 9.4%)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70년대, 특히 19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표 2〉 분야별 협동조합 노동자 수

	1971	1981	1991	2001
농수산	32,660	33,795	27,948	36,917
제조업	44,213	90,355	112,762	85,815
건설	32,168	58,811	61,654	57,796
도소매	25,386	44,078	83,611	74,047
기타 서비스	73,050	135,396	270,837	531,517
사회적 협동조합	27,510	149,147		
합계	207,477	362,435	584,322	935,239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표 3〉 센서스에 나타난 협동조합, 1951~2001

	협동조합 수	전체 기업에 대한비율(%)*	노동자 수	전체 노동자 수에 대한 비율(%)*
1951	10,782	0.7	137,885	2.0
1961	12,229	0.6	192,008	2.2
1971	10,744	0.5	207,477	1.9
1981	19,900	0.7	362,435	2.8
1991	35,646	1.1	584,322	4.0
2001	53,393	1.2	935,239	5.8

주: *공공기관 제외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Istat, Zamagni and Zamagni (2009)에서 재인용

- 1951년에 협동조합의 평균 규모는 다른 형태의 기업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협동조합의 평균 피고용자수는 12.8명, 다른 형태의 기업은 평균 24.6명), 2006년에는 협동조합당 평균 노동자수는 20.7명이었는데, 이는 다른 형태의 평균 피고용자수 7.7 명의 거의 3배에 이름 (Centro Studi, 레가협동조합의 싱크탱크, www.legacoop.it/centrostudi), 2001년 기준 전체 직원 중의 45.5%가 여성이었으나 전체 기업의 통계를 보면 여성 직원수는 38%였음.

- 이탈리아의 산업구조는 8:2정도의 비율로 중소기업이 월등함. 세계적인 수준의 중소기업이 존재함. 금융 중심의 제3차 서비스업보다는 기계, 섬유 등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협동조합이 197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음. 2004년 현재, 53천 개 조합 중에서 105개 대규모 조합이 전체 협동조합 조합원수의 58%를 차지하고, 전체 협동조합 매출액의 34%, 전체 협동조합 종업원수의 22%를 차지함.

〈표 4〉 500인 이상을 고용한 협동조합 기업

	기업 수				노동자 수			
	1971	1981	1991	2001	1971	1981	1991	2001
농업	1	3	0	0	2,166	3,815	0	0
수산업	2	0	0	0	1,063	0	0	0
제조업	3	7	13	13	1,980	5,065	13,476	16,522
식품 가공업	3	7	8	10	1,980	5,065	6,193	13,429
건설업	3	17	15	7	3,344	15,690	12,269	5,943
도소매	5	11	15	16	2,899	9,000	21,804	35,095
호텔 및 식당	0	2	3	5	0	1,528	3,986	15,555
운수 및 기타	8	4	1	17	14,231	2,984	553	11,569
금융중개	6	12	30	24	9,518	21,270	40,707	55,584
시설 관리 서비스	0	2	11	34	0	1,468	11,709	57,477
청소업	0	1	9	32	0	1,468	9,776	47,150
건강 및 기타 서비스	0	0	0	3	0	0	0	3,329
기타 사회적 서비스	0	0	1	2	0	0	1,019	1,685
합계	28	58	89	121	35,201	60,820	105,523	202,759
조합당 노동자수					1,257	1,049	1,186	1,676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2)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특징

-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농협, 소협, 신협뿐만 아니라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해 왔음.

- 둘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립적이지 않고, 비정치적이지 않으며, 종교에 중립적이지 않음. (Zamagni, 2006)

- 레가협동조합에서는 오랫동안 구이탈리아 공산당과 사회당에서 추천된 이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관계가 있었으며 이사회 구성 역시 대부분은 공산당원과 사회당원이었음. 그란 이러한 운영체계는 1990년대 들어와 해체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결론이 났다. 1996년에 레가협동조합 회장으로 선출된 바르베르니씨는 레가협동조합 최초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회장이었음.

- 독일의 나치체제하에서 독일의 소비자협동조합에 해체된 것처럼 무솔리니의 파시즘 치하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으나 독일과 다르게 협동조합이 사라지지 않았음. 이탈리아에는 한때 2만 5천 여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들 중 1만 2천 개의 협동조합이 살아남았음. 파시즘은 폭력으로 많은 협동조합을 파괴했으며 또 일부 협동조합은 국가통제형의 기업으로 변질시켰음.

- 셋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세 가지 갈래로 발전해왔고, 이러한 세 가지 갈래의 협동조합은 각각 총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고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 조직이 결성되어 있음.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들은 1886년에 전국조직 전국협동조합, 공제연합회(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e Mutue)를 설립함. 이 조직은 가톨릭, 사회주의, 공화주의 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단일 전국조직이었음.

1919년 가톨릭계 협동조합이 탈퇴하여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Confcooperative)를 창립하였음.
- 자유주의적 전통(AGCI, 1952)
- 사회주의-공산주의 전통(Legacoop, 1945)
- 카톨릭 전통: 교황 레오 13세의 사회적 참여 (Confcooperative, 1945), 이 조직에서 분리되어 나온 조직(UNCI, 1975)

- 협동조합연맹(Confcooperative)은 소규모 협동조합을 유지한 채 사업연합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레가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업 그 자체의 규모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 레가협동조합은 보험 분야에서 중요한 존재인 반면에 협동조합연맹은 그렇지 않음. 레가협동조합에서 생협은 시장의 선두주자인 반면에, 협동조합연맹 소속의 생협은 틈새시장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농협은 양쪽 연합회에 모두 중요하지만 협동조합연맹이 농협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노동자협동조합은 레가협동조합연맹 측에서 강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양 측 모두 강한 편임.

〈표 5〉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2006년 기준)

	기업 수	매출액 (10억 유로)	조합원 수	직접 고용 수
Legacoop	15,200	50	7,500,000	414,000
Confooperative	19,200	57	2,878,000	466,000
AGCI	5,768	6	439,000	70,000[a]
UNCI	7,825	3[a]	558,000	129,000
Unicoop	1,910	0.3[a]	15,000	20,000[a]
위에 속하지 않는 조합	21,561[b]	3[a]	100,000[a]	150,000[a]
합계	71,464	119	11,490,000	1,249,000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 넷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을 위한 금융 및 경영지원시스템을 잘 갖추어있으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상호지원기금을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FINEC(협동조합운동을 위한 전국금융회사)는 1987년에 설립된 투자은행으로 형태는 주식회사,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하려는 목적하에 레가와 이탈리아 최대 국영신용기관인 IMI가 공동설립했음. 기능은 협동조합의 벤쳐캐피탈 제공, 장기투자 제공, 금융서비스 제공(시장분석 및 리스크 분석, 상담기능 포함), 초기 운전자금은 500억 이였음.

- 각 계통의 협동조합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컨소시아(Consortia)를 구성하였음. 이러한 컨소시아는 1980년대 말에 처음으로 등장하

였는데, 2008년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Daniele 외, 2009). 컨소시아는 훈련서비스, 기술서비스, 관리서비스, 지식 및 정보제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임금대장, 회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며, 더 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마련을 준비하기도 함. 또한 Confcooperative의 지원을 받는 CGM (Consorzio Gino Mattarelli)나 Legacoop의 지원을 받는 Farsi Prossimo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컨소시아는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협동조합계통조직인 Confcooperative와 Legacoop는 더 나아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하의 수많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출연기금을 조성하였음. Confcooperative에 의하여 조성된 Fondosviluppo와 Legacoop에 의하여 조성된 Coopfond는 일종의 협동조합 상호지원기금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기금의 모든 회원들은 연간 당기순이익금의 3%를 이 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이 기금의 활용범위에 의해 일정정도의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혁신과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전국에 걸쳐서 협동조합의 깊은 뿌리가 있음. (〈표 6〉 참조)

- 협동조합 직원수를 남부와 중북부로 비교해 본다면 2대 10의 비율임. 남부이탈리아에는 수협, 사회적 협동조합, 농협 등이 발달되어 있고, 중북부에는 생협과 자영업자협동조합이 앞서 있으며, 노동자협동조합이 발달되어 있음.

〈표 6〉 협동조합의 지역별 고용 현황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 협동조합 2001년
	1971년 비율(%)	2001년 비율(%)	증가율 (%)	
북서 지역 조합	23.5	27.0	3.4	31.7
북동 지역 조합	39.8	31.0	1.9	28.3
에밀리아-로마냐 조합	25.1	16.9	1.6	
중앙 지역 조합	16.7	19.9	3.5	20.7
투스카니 지역 조합	8.5	6.7	2.0	
본토 남부 지역 조합	13.0	15.1	3.4	10.0
도서 지역 조합	7.0	7.0	2.8	9.3
합계	100	100	2.8	100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3)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은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1970년대 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자발적인 활동에서 출발하면서 협동조합로 발전하였음.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970년대 트리에스테에서 일어난 장신장애자의 격리 입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배경이 되어 정신장애 및 약물의존증환자, 이민자, 장기실업자, 노숙자, 출소자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

- 당시 이탈리아에서 기업의 지위를 가지면서 배분되지 않는 이윤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협동조합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에 있어서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기존의 협동조합의 지위 하에서는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공중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라는 조직형태가 생겨났음.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회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유급근로자, 자원봉사자, 서비스 수혜자(장애인, 노인 등), 후원자, 공공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에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7,363개이며, 사회적기업 종사자는 278,849명에 달하였음.

- 종사자를 좀 더 세분해 보면 정규직 근로자 211,307명, 계약직 근로자 31,329명, 자원봉사자 30,478명, 공공근로자 3,415명, 임시직근로자 1,287명, 종교관계자 73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 보건, 교육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전자를 A유형이라하고 후자를 B유형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두 유

형 간에 엄격한 구분을 둬서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는 것, 즉 우리나라의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1)]

- 전체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2003년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A유형)이 57%, 노동통합형(B유형)이 43%이며, 고용된 근로자 기준으로 A유형이 70%, B유형이 30%, 또 2005년 총생산액 기준으로 A형과 B형의 비율은 75% 대 25%로서 A형 사회적기업이 생산이나 매출 측면에서 대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활동영역을 보면, A유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공부문과의 거래가 대부분으로 사회적기업의 59.1%가 사회적 돌봄 영역, 교육 및 연구기관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그 밖에 문화 및 스포츠/레크리에이션(10.7%), 보건(9%), 기타(0.2%)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B유형 사회적기업은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도 퍼져 있어서 민간부문과의 거래가 활발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A유형은 고객의 77%가 공공부문인데 반해 B유형의 주요고객은 민간부문이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40%로 낮은 편임. 이탈리아의 B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들은 정신장애, 신체장애자, 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자, 보호관찰 중인 출소자 등으로서 특정한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며, B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취약계층을 최소한 3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면제됨.

- 사회적 협동조합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외주를 주는 경향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음.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법이 제정되기 15년 전에 사회적 연대협동조합이 노동공동체, 리셉션 공동체, 치료 공동체 등과 함께 시작한 활동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들 조직은 수혜자를 '위해' 서가 아니라 수혜자와 '함께' 일한다는 창립 가치로 움직였는데, 차츰 기업조직으로 변해갔음.

- 1990년대에 지방과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재단이나 단체 및 자원봉사조직들이 결합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수만 개의 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실제 노인과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영역에서 공공부문(19%와 15.4%)보다 제3부문(81%와 84.6%)의 비율이 훨씬

1) 이탈리아정부는 이러한 혼합형 사회적 기업을 허용하고 협동조합형태이외의 사회적 기업을 허용하기 위하여 2005년에 사회적 기업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높다는 점에서도 드러남. 이는 지방정부가 이전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사회공공서비스 부문과 복지 전반에 걸친 권한을 이양 받았으며, 고용서비스들도 최근에는 지방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었음.

-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의 저변에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사회방침과 연대정신, 특히 장애인들에게 보살핌과 나눔의 손길을 보냈던 여성들의 관대함에서 유래했음. 나중에 사회단체 및 가족집단, 서비스전문가, 노동조합이 노동을 통하여 장애인 지원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분야의 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되었음.

4) 이탈리아 협동조합관련 제도의 특징

- 헌법조항: 1947년에 제정된 새로운 이탈리아 헌법 제 45조에서는 "공화국은 비투기적인 본성을 지니며 호혜적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헌법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적정한 감독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전국해방위원회(취)가 헌번초안을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유사협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였다고 함)

- 헌법 제1조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를 둔 민주공화국이다." 중략
- 헌법 제2조 "공화국은 개인적으로나, 인격을 갈고 닦는 장이 되는 사회적 조직에 있어서나 인간은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승인하고 또한 이를 보장하고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인 연대에 기초하여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헌법 제41조 "사적 경제활동은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다. 사적인 경제활동은 사회적 이익에 반해서 또는 안전, 자유, 인간존중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영위해서는 안 된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경제활동이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조정되도록 적당하게 계획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46조 "노동의 사회적 및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또한 생산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화국은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한도에서 노동자가 기업의 관리에 협력할 권리를 지님을 인정한다."

- Besevi law(1947)은 협동조합의 성장과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 협동조합의 감독, 등기, 중앙회, 상호부조의 요건, 관할관청의 의무 등을 규정했음. 1949, 1950, 1951, 1971년 개정 후 1992년에는 조합원제도 수정, 전국협동조합공제기금 설치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 법은 초기에 이 법률이 요구하는 주요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규제에 따르지 못하는 많은 협동조합을 해산시켰음.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자 협동조합운동은 모든 경제 부문

에서 발전하였고 경제적인 효율성과 사회정의란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 1947년의 법은 협동조합의 법적 요건을 1인 1표 의결권, 출자금에 대한 이자제한, 이윤의 20%는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으나 최소 20%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 해산 시의 순자산은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상호부조의 정신과 합치하는 공공 목적에 양도함 등으로 이 요건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의 감면조치 (생협은 25%, 농협은 100% 등)를 인정했음.

- 1977년까지는 Pandolfi law로 모든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은 완전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되어 2002년까지 유지되었음. 협동조합의 자본을 비분할자본으로 만들어서 금융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적 이익도 포기하려는 조합원의 의지를 표현하고 봉사기능을 우선하고 협동조합의 세대 간 전통과 연속성을 대변함.

- 20세기 초반에서의 협동조합법: 컨소시움의 결성 허용: 민주적 경영과 규모의 경제 동시 추구 가능

- 1977년 법: 불분할 내부유보금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 협동조합의 자본축적에 크게 기여

- 1983년 법: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
(Legacoop의 보험회사인 UNIPOL은 상장된 주식회사임)

- 1992년 법: coop member-financial backer와 cooperative privileged shares를 도입

3.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협동조합 현황과 특징

1)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특징

- 볼로냐는 에밀리아-로마냐의 수도인데, 인구 440만 명의 에밀리아-로마냐 주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들 중의 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1인당 지역소득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소득이 높은 지역임. (총 20개 주)

- 그런데 1970년도에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경제상태는 이탈리아 20개 주 중에서 거의 바닥에 있었다고 함.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럽연합의 122개 지역 중

에서 10위로 잘 사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실업률도 7%수준에 불과하고 지역의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30%가 높은 편임.

- 농업과 공업,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전한 지역임.

- 전자, 기계, 섬유, 식품, 의료기기, 세라믹 산업 등이 발전되어 있는데, 2004년 기준으로 420,401개 회사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3.4%로 이탈리아 평균인 51.3%보다 훨씬 높은 편임.

- ERVET: 공사성격의 기구, 1973년 설립, 지역개발공사 주도 지역혁신정책과 클러스터, 이 지역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업가적 혁신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음.

- 42만 여개의 기업 들 중에서 90%이상이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음. 500 명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5개에 불과한데, 이중 두 개가 협동조합 (SACMI, CMR)임.

- 역사적으로 보면, 농업중심의 남부이탈리아는 노르만 왕국, 나폴리왕국으로 대표되는 봉건적인 지배구조와 보수적인 가톨릭의 아성이었다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만성적인 실업과 후진적인 경제구조가 온존한 지역이고,

- 밀라노, 토리노 등의 도시를 포함한 북부이탈리아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가공형 수출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지역임.

- 에밀리아-로마냐주,토스카나 주 등 중부이탈리아지역은 피렌체, 시에나, 피사, 볼로냐, 리미니 등 중세자치도시가 발달한 곳이었고 당시의 수많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의 전통 속에서 일찍부터 자립적이며 기술 중시의 소규모 직공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는 경제가 발전한 곳임.
  레가의 협동조합들은 주로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형성해왔음.

- 볼로냐는 인구 38만 명의 대학 도시(볼로냐 대학, 1088년에 설립됨,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단테(Dante),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등이 이 대학 출신임), 위성도시까지 포함하면 100만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식품가공, 담배, 전기, 축산, 신발, 면직, 화학인쇄, 출판, 기계, 상업(도소매)등이 발전함. 포장기계부문에 특화,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비율 80%를 차지함.

- 1945~1999년까지 자유주의적이고 좌익성향의 시장이 계속 집권하였으며, 레가의 본부가 여기에 있으며, 노동자협동조합 및 농협의 밀집도가 강한 편임.

2)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협동조합 현황

- 에밀리아-로마냐주 지역에서는 주민 2명 중에 한 명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은 지역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협동조합이 고용하는 인원은 1971년에 53,780명에서 1981년 94,937명, 1991년 111,097명, 2001년 144,4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음.

- 현재 7,500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2가 노동자협동조합임.

- 이탈리아에서 에밀리아-로마냐, 트렌티노와 투스카니 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가장 왕성했고,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이 협동조합부문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소매, 건설, 농업, 주택, 제조,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강한 편임.

- 협동조합은 생산, 유통, 훈련, 마케팅, 네트워크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대규모 엔지니어링, 건축, 유적지 재건프로젝트 등이 노동자들이 소유한 건축협동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규모 제조협동조합들은 생산품의 50-90%를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음.

- 볼로냐 지역에서 소비자협동조합(Coop Italia)과 슈퍼마켓협동조합(CONAD) 모두 레가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며, 생필품시장의 1위 기업들임.

- 에밀리아-로마냐 주에는 곡물, 감자, 토마토, 양파, 옥수수 등 및 그 가공품, 포도 등 과일과 와인 등 8100개의 농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2,160개가 볼로냐에 있음.

3) 몇 가지 협동조합 사례

가. 노동자협동조합 밀집지역 이모라(Imola)

- 포 계곡에 위치한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중소 전원도시, 인구 64천 명(2000년), 교외인구 포함하면 12만 명. 132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가장 협동조합화 된 도시라고 할 수 있음. 주민 2명 중 1명은 조합원이고, 직장의 17%는 협동조합이 제공, 협동조합이 고용한 인원은 13,487명, 지역수입의 약 60%가 협동조합에서 창출됨. 이는 제조업분야의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과에 기인함. 1870년대 로마냐 혁명적 사회당을 결성하여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한 배경을 갖고 있음.

- 대표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이 SACI (Sacmi Cooperativa Meccanici di Imola)임.

- 도자기산업용기계, 설립생산분야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 음료생산라인 및 포장라인, 식품가공라인 및 검사라인, 플라스틱관련 설비를 취급, 현재 23국에서 3500명을 고용하고 생산량의 85%를 수출하고 있음. 1919년 9명의 실업자 기계공에 의해 설립됨. 1차 세계대전 후 불황기에 실업한 9명의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은행과 당시 사회당 정부였던 지자체가 빌려준 체육관을 이용하여 플랜트공장을 세웠음. 이들은 이익의 25%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50%는 적립, 20%는 조합원, 남은 5%는 협동조합사상의 추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왔음.

나. COOP RENO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코프 레노는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을 활동구역으로 하여 1988년에 설립됨.

- 처음에는 6개의 가게로 시작하여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은 가게나 다른 협동조합을 인수합병하여 성장하여 왔음.

- 2011년 현재 총 36개 매장을 운영하고, 직원은 769명, 조합원은 7만 2,619명, 연 매출액은 156백만 유로임.

- 조합비는 가입시 25유로임.

- 코프레노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사의 웰빙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생협매장에서 창출된 이익의 상당부분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와의 협력사업 (올바른 식습관 및 소비방식, 환경과 이주민문제 등에 대한 교육자 고용과 프로그램 지원), 빈곤에의 대응 (매장 내 상품가치가 낮아진 식품의 비영리기관에 기부, 매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Food Collection Day에 참가), 환경보호(유기농,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 지역문화홍보와 활동 촉진(지역내 연극이나 영화극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영화로 제작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병원, 연구소, 학교 등에 의료장비와 컴퓨터, 장학금 지원 등)을 펼치고 있음.

- 2011년의 경우 조합원이용금액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1인당 약 28유로)의 이용고배당을 하고 세금내고 난 후 100만 유로 이익금 중 3%는 coop fund, 30%는 조합원 지분화 가능한 적립금, 67%는 불분할 적립금으로 처분하였음.

- 코프르노는 1989년부터 매장운영을 하기 시작하여 1990년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였는데, 설립 초기에 레가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인 COOP Italia로부터 사업 및 경영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었다고 함.

다. ANSOLINI (주택협동조합)

- 안솔리니는 볼로냐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협동조합의 하나로 1948년 볼로냐 지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결성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하나의 집을 공동으로 지어서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함.

- 조합원은 11,500명, 상근직원은 20명, 조합의 자산규모는 6천만 유로임. 건축의 상당부분은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고용인원은 많지 않음. 조합원은 170 유로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할 수 있으며, 탈퇴할 수 있음.

- 볼로냐에는 건설, 주택분야에서 15-20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볼로냐 주택공급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음.

- 안솔리니는 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해주는 사업과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사업을 펼치고 있음. 조합원이 분양에 당첨되면 2년에 상환하게 되어 있고 분양받지 못하면 가입비를 돌려줌.

- 안솔리니는 2000년부터 친환경 건축기법을 통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있고, 재활용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지향하고 있음.

라. LA RUPE (돌봄형 사회적협동조합)

- 1984년에 가톨릭교회에 의해서 설립된 라 루페는 1999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B형으로 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A형의 자격도 갖추게 되었으며, 2010년부터 혼합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되었으며,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음.

- 연간 수입은 610만 유로 (80%는 공공기관, 20%는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발생)이고 142명의 직원 중 5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고, 출자금은 1인당 평균 600유로임.

- 직원 142명 중 90명은 재활교육을 시키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30명은 마약자 등을 보살피는 일, 그리고 15-20명은 관리에 종사하고 있음.

- 직원의 조합원 가입하는 동기는 직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때문이라고 함. 또한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조합원에 환원해주는 것도 약간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

- 사업과 서비스 중에서
B유형 일자리: 병원, 요양원 세탁, 청소, 전기보수, 어린이공원 관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줌), 정규직으로 35명, 그동안 A형에서 B형으로 전환되어 왔는데, 35명으로 할당인원이 채워져서 지금은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A유형 서비스: 마약중독자 대상 (3개의 커뮤니티를 대상), 알콜, 코카인(daycare 심리치료),
이민자, 홈리스 짚시 대상: 부모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 총 250-300 명 서비스 대상자
A형 서비스가 중심이고, B형의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지출초과). 이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기업들이 단순일자리를 감축하기 때문임.

- 운영비용은

A형의 경우, 주, 시 등에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음.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와 운영을 결정하고 있음.

B형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개척하고 있음.

- 가톨릭 소유의 요양시설을 임대료를 내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12개의 커뮤니티의 시설을 임대하여 쓰고 있음.

- 볼로냐 주변 지역에서 B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많지만 마약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없음.

- 자원봉사자조합원 2명이고 비조합원자원봉사자도 많은 편임. 후원조합원은 없음. 후원자는 association에 많은 편임.

- 라 푸페는 이탈리아가 사회복지재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사회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일하면서 어려움이 적지 않음. 첫째, 결제기일이 늦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할 정도인데, 이는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 특히 남부지방에서 소규모 협동조합은 문닫는 경우가 많음. 둘째, 행정(규정 등)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음, 행정과의 계약기간은 마약의 경우 4년, 홈리스 잠자리 제공의 경우는 1년 6개월에 불과함.

- 라 루페는 레가코프 소속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코프펀드, 코프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필요성이 높지 않아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음. 다만 경영컨설팅의 도움을 많이 받아 왔음.

마. CADIAI (교육,돌봄형 사회적 협동조합)

- 카디아이는 A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1974년에 볼로냐에 설립됨. 비영리조직으로서 ONLUS에 등록되어 있으며, 레가코프와 Lega Coop Sociali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종업원은 1,246명 (여, 1076)이고 이 중 조합원은 63%이며,
  이사회의 여성비율은 86%임.
- 2011년 매출액은 33백만 유로 (약 500억 원)임.

- 카디아이는 사회, 교육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동체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또한 조합원의 안정된 고용, 최고의 경제, 사회, 전문적인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자격훈련 프로그램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맞춤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더 나아가 참여와 협력, 기업의 책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카디아이는 다음과 같은 활동분야로 나뉨: 노인을 위한 사회보조서비스(홈케어, 주간 간호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놀이방, 놀이터), 사회부적응 아동을 위한 교육서비스(세미주택서비스, 주간병원, 교육단체 및 지역적 프로젝트), 사회적, 심리적 문제, 중독증, 범죄, 성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재활서비스(주거서비스, 세미주택서비스, 지역서비스, 홈케어), 예방 및 보호서비스(근로자의 건강과 근무지에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직운영 방법론, 재정관리 활동 컨설팅).

- 카이다이는 UNITER에서 발행하는 ISO 9001이라고하는 품질보증서를 장애인, 노인, 어린이, 성인 등 네 가지 분야에서 2008년에 획득하였음.

- 카이다이는 25개의 유치원(Gaia)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로시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어린이들의 놀이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가 사회보장세를 제외하고 약 1000유로로 공립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 1500유로에 미달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아동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 카이다이는 2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하여 7개 요양시설, 5개 주간케어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시설은 시가 위탁운영하거나 조합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도 있음. 시설이용비용은 본인과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음.

- 카이다이는 1974년에 27명의 조합원(대부분 여성)으로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베이비시터나 일시적 요양사들이었음. 현재 카이다이의 자본금은 1백만 유로정도이며, 대표는 750명의 조합원이 13명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출됨.

- 현재 카이다이는 CARABA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협동조합, 급식협동조합 등 9개 지역 협동조합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400만 유로를 출자하여 10개의 유치원을 건설 중임. 지방정부가 368만 유로를 지원하고 14백만 유로를 대출하여 추진하고 있음.

4. 이탈리아 사회적경제부문으로부터의 시사점

-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협동조합과 가톨릭에 의한 자선단체(협회, 재단 등)의 전통이 강한 나라로서 협동조합적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

- 이러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왔음.

- 이러한 협동조합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요인은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정부에 계통 조직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들간의 수평적, 수직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전통을 강력하게 수립해왔음 (Menzani and Zamagni, 2010).

- 둘째,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제를 갖추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연대기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음. 한국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협동조합지원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전무(농협은 왜곡된 형태로 농협경제사업 지원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차단)하다는 점에서 이는 가장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 분석 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됨.

- 셋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발전경로의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면서 발전해왔음. 전통적으로 레가협동조합은 지역협동조합의 규모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에서 가톨릭계통의 협동조합연맹은 지역에 밀착된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을 강조하고 틈새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 넷째,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제도 및 인센티브방안을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음.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를 조건으로 한 세제혜택, 유사협동조합 난립 방지를 위한 감독체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협동조합연대기금 설치와 세제혜택과의 연계, 새로운 시장 및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법의 허용,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촉진(고등학교에서의 협동조합교육 연 30시간 의무화 등)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